

올해 수능, 칸막이 없애고 백신접종자도 마스크 필수

점심식사 때만 칸막이 직접 설치 수능 전 확진시 수험표 대리 수령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착용 불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책상 칸막이를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

오는 18일 코로나 속에서 두 번째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책상 칸막이 없이 치러진다. 단, 마스크를 벗는 점심 시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시험장을 배정받아 시험을 봐야 한다. 17일 예비소집일에는 가족 또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입실 가능...8시10분까지 입실 완료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두고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시·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을 치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은 재택 치료를 하다가 시험 당일 자차 또는 구급차로 별도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십여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국화꽃 공양기도를 위한 소원지에 수능 고득점 및 합격을 기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오는 17일은 예비소집일로, 수험생들은 이날 수험표를 직접 수령하며 시험장 위치를 확인한다. 학교 위치나 구조 등은 조감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교내 건물 출입은 불가하다. 확진·격리 수험생들은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출입은 모든 수험생이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단,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갖고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 1장을 미리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칸막이 없이 시험...마스크는 백신접종자도 필수

수능 시험 내내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책상 칸막이는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점심시간 수험생은

'ㄷ'자 모양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한 후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식사 후에는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하면 된다.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일반수험생은 일반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선 안 된다. 보건당국은 시험 당일 의심증상이 있어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는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부정행위 예방에도 신경써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통신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포함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소지가 적발될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쉬는 시간과 시험 시간 휴대 가능한 물품이 구분돼 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려대, LG엔솔과 손잡고 '배터리학과' 신설

내년부터 배터리-스마트팩토리학과 배터리-스마트팩토리 전문가 교수



정진택 고려대 총장(왼쪽)과 김흥식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 인사 책임자) 부사장(오른쪽)이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고려대학교와 LG에너지솔루션이 2022학년도부터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를 설립하고 차세대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스마트팩토리학과'는 학위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석박 통합과정, 박사과정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AI기반 배터리 소재 및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배터리공학' 분야와 스마트팩토리보안, 디지털 트윈 및 공정해석 등을 연구하는 '스마트팩토리' 분야이다. 학생들에게는 배터리 전문가 및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로 구성된 2인의 지도교수가 배정돼 배터리 도메인 영역과 스마트팩토리 영

역의 전문역량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 고려대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 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매월 장학금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위 과정 중 LG에너지솔루션의 현장 프로젝트

트에 참여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학위 취득 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에 취업이 보장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오후 3시 고려대 본관과 LG에너지솔루션 본사, 대전기술연구원, 오창공장에서 원격으로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 신설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고려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 산학 협력 협약을 맺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 ▲스마트팩토리 구축 ▲빅데이터·AI 교육 등 3개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번 학과 신설은 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오산시, AI 기반 교육 협약

융·복합 교육 사업 추진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오른쪽)과 박상욱 오산시 시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오산시와 9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및 AI(인공지능) 융·복합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공유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협력 ▲AI(인공지능) 교육과정 모델링 개발 및 현장 구현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정부의 미래인재 양성정책에 따라 첨단학문 중심의 창

의용합대학 소속 인공지능응용학과(21년), 지능형반도체공학과(22년 예정), 미래에너지융합학과(22년 예정)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이기영 교수, 英 RSC 신진연구자 선정

(인하대)

금속 산화물의 나노구조 활용 연구



는 경제적인 스피ن 코팅법을 통해 얻어진 단결정 TiO₂는 BiVO₄의 안정성을 확보했

인하대학교는 이기영 화학공학과 교수(사진)가 영국왕립화학회(RSC)에서 발간하는 나노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스케일의 2022년 '이머징인베스티게이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기영 교수는 금속 산화물의 나노구조를 활용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관련 연구를 인정받아 나노스케일의 신진연구자 시리즈에 초청논문을 발표했다. 연구논문은 지난달 발행된 나노스케일 40호에 실렸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 'WO₃/BiVO₄ 이중접합 나노구조 표면의 단결정 TiO₂ 나노입자 코팅을 통한 수소 생산'에서

는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친환경적 산업에 활용될 원천기술 개발에 이용된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국제학술대회 'ICSU 2021'

삼육대학교는 올해 개교 115주년을 맞아 전 세계 123개 자매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ICSU 2021'(삼육대학교 국제가상회의)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의 버추얼 컨퍼런스로 운영한다.

'미션, 비전, 열정을 세계와 함께'를 총주제로 종교·신학, 인문사회과학, 헬스케어,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5개 분과 12개 세션에서 27개국 6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글로벌언어문화사업단이 학생의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와 신북방 지역 교류 협력 체계 발전을 위해 9일 키르기스 국제대학과 '제2회 온라인 국제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호서대

호서대, 키르기스 국제대와 콜로퀴엄 개최

韓-키르기스스탄 교류 협력 방안

호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사업단은 학생의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와 신북방 지역 교류 협력 체계 발전을 위해 9일 키르기스 국제대학과 '제2회 온라인 국제 콜로퀴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 콜로퀴엄은 디나라 케멜로와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 김대현

호서대 총장과 호서대 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과, 한국어언어문화학과 교수 및 학생, 유민 키르기스 국제대학 총장 및 교직원·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2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키르기스스탄의 교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한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의 특별 강연과 대학 구성원의 토의도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